

광양시, '광양음식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발표

'맛·청결·안전, 미식여행은 광양으로' 비전 실현 나서

관광과·보건위생과·농산물마케팅과 TF팀 꾸려 운영

광양시는 '맛·청결·안전, 미식여행은 광양으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광양음식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내놨다.

26일 광양시에 따르면 여행지 선택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음식' 관광트렌드에 맞춰 광양만의 고유한 음식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개발해 관광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김명원 광양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사업연계성을 가진 3개 부서(관광과, 보건위생과, 농산

물마케팅과)가 관광문화환경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지원단으로 음식관광 TF팀을 꾸려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관광과는 △광양음식관광 대표 브랜드 슬로건 개발 △관련 사업체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빙 컨설팅 △음식문화 전문해설사 푸드큐레이터 육성 △명인과 함께하는 광양요리쿠기클래스 △지역 로컬푸드를 소재로 한 생태미식 △흔쟁족·소규모 여행객을 위한 미식여행(테이스팅 투어) 등 차별화된 음

식테마 관광코스를 개발한다.

보건위생과는 △신규 음식점거리 조성 △기준 마거리타운 시설 정비 △광양읍 닭숯불구이 특거리 조성 △광양해비치로 등 신규 관광사업지 내 '로컬음식 테마거리' 조성 △광양맛집 선정 △대물림 식당 지원 강화 등 권역별 먹거리 거점 공간과 경쟁력 강화에 힘쓴다.

농산물마케팅과는 △광양식 한상차림 △절기 음식 복원·발굴 △식도락여행 맞춤형 음식개발 △향토 음식 명인 지정 △음식체험 프로그



램 개발 △음식 상표등록 및 브랜드화에 주력하고, 마을별 전승 음식의 조리법 발굴과 젊은 층의 입맛을 사로잡을 음식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화엽 관광과장은 "광양 음식

이 미식여행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여행식단과 관광코스를 마련해 지속적인 관광관광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남해안남중권 발전협 제16차 정기회의 개최 '9개 시·군 상생발전 결의'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회장 권오봉 여수시장)는 최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9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2020년 공동추진사업과 협의안건을 심의하고, 9개 시·군의 지역발전과 경제권 거점 형성을 위한 사업 성과를 점검했다.

특히 중앙정부 방면 등 공동협력 사업인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 협력,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제2관문 공항 남중권 유치 공동협력, ▲섬진강 복합형 휴게소 조성, ▲광양항~율촌산단 간 연결도로 개설, 5개 사업에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 "코로나19 극복! 힘내! 대한민국! 함께해요! 남해안 남중권"이라는 메시지가 적힌 팻말을 들고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응원하며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10일 발생한 고흥 윤호 21병원 화재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에서 3,000만 원의 성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임기 마지막 회의를 주재한 권오봉 회장(여수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남해안 남중권 협력을 통해 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유치가 더욱 힘을 받고 있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공동대응과 다양한 남중권 연계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남해안 시대를 견인하며 상생 발전을 위해 더욱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경남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과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등 9개 시·군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로, 남해안 발전거점 형성과 영호남의 상호 교류를 위해 2011년 5월 창립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용 기자

순천시,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 참가자 모집

도심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정원의 전시·경연

순천시가 재능있는 정원디자이너 발굴과 대한민국 정원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제7회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 참가자를 모집한다.

'내게 ON GARDEN'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한평정원 페스티벌은 학생부, 일반부, 리뉴얼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참가 자격은 학생부는 순천시 소재 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이고, 일반부는 정원 조성에 관심과 경험이 있는 순천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리뉴얼부는 순천시 도심에 위치한 기존 정원의 리뉴얼과 추가 조성을 희망하는 순천시민과 순천시

소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정원디자인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생부 20개, 일반부 20개, 리뉴얼부 40개 작품으로 총 80개 작품을 선정해 정원조성지원금으로 최대 2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출품자는 선정된 정원디자인을 토대로 9월초까지 직접 정원을 조성해,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진행되는 '제7회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 기간동안 전시되어 심사한 후에 도심에 존치될 예정이다.

최종심사 결과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금 학생부 ▲대상 산림청장상과 상금 400만원, ▲최우수상 전라

남도지사상과 상금 300만원, ▲우수상 순천시시장상과 상금 200만원, ▲장려상(2팀) 순천시시장상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되고, 일반부 ▲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전라남도지사상과 상금 200만원, ▲우수상 순천시시장상과 상금 150만원 ▲장려상(2팀) 순천시시장상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리뉴얼부는 ▲최우수상 전라남도지사상과 상금 150만원, ▲우수상(2팀) 순천시시장상과 상금 100만원, ▲장려상(2팀) 순천시시장상과 상금 50만원이 수여 될 예정이다.

참여신청은 오는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한국가드너협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고흥군 도양읍, 출산장려 후원 업무협약

도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꿈씨앗' 통장 지원

고흥군 도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장종실)는 지난 21일 지역복지 증진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농동새마을금고,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와 '꿈씨앗 통장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사업의 대상은 2020년도 출생아이며 '꿈 씨앗 통장'으로 저축 버릇 여든까지 저축습관과 아이의 꿈을 이루는 씨앗(종자돈)이 되기를 기대하고, 아울러 지역 내 기관의 나눔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 기부 문화 조성 및 민·관협력 복지사업의 폭을 넓히는 계기 마련의 장이 되었다.

꿈씨앗 통장에는 10만원이 입금되어 지원되며, 읍 협의체에서는 대상자 발굴과 사업안내, 새마을금고에서는 후원금 지원과 통장 개설, 사회복지협의회는 후원금 관리와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한다는 내용이다.

2019년도 도양읍 출생아는 45명

이며 새마을금고에서는 "고흥군의 출산장려 후원을 위해 출생아 전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꿈씨앗 통장'을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고흥군 도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6년 4월 구성되어 취약계층 46가구에 현관문 자동방충망을 설치(705만원)했으며, 기초수급가구 초중고생 37명에게 20만원의 기프트카드 지원(740만원)과 주간보호센터 2개소를 방문하여 노래, 말벗, 웃음치료 등 재능기부 활동을 추진했다.

올해도 지역의 후원자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오늘은 외식하는 날', '식품나눔 데이'를 통해 139명에게 185만원 상당의 식사쿠폰, 열무김치, 식품상자를 지원했고 '꿈사랑 통장지원', '저소득 가정 아동 희망티움' 등의 특화사업으로 85명에게 1,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순천시 수돗물 안심하고 드세요"

수돗물 유충 전수조사 결과 '이상없음'

순천시가 관내 정수장 4곳에 대해 수돗물 유충 긴급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수돗물 유충사건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수돗

물에 유충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순천시에서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관내 정수장 4개소에 대한 긴급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순천시 상수도과 관계자에 따

르면 최근 문제가 된 시설은 활성탄여과시설을 갖춘 고도처리 시설로 순천시는 여과사(모래)를 이용한 표준여과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유충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순천시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관내 정수시설 내 방충망을 전면 교체·보완에 완전히 밀폐했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장성진품한우식육식당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37-56 TEL : 061)394-0092